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평생교육기관 책임 다할 것”

김동진 광주대 총장 취임 1주년

경영마인드 접목, 혁신·변화 이끌어... 각종 공모사업 통해 재원 확충

“혁신과 변화의 시대에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 소통협력, 문제해결, 자기주도 역량을 두루 갖춘 글로벌 미래인재로 육성하고, 지자체·기업·지역과의 장벽을 허물고 지역소멸 위기를 앞장서 개척하는 끈끈한 파트너십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책임을 다하는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김동진 광주대학교 총장은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실패가 용인되는 캠퍼스’ 운영 ▲학과 구조 개편 가속화 ▲진로 탐색, 사후관리 단계별 취업프로그램 운영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 확충 등을 통해 생동감 있는 젊은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1문 일답.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업가 정신은 미래 사회의 변화와 위기에 도

전하고 실패에 굴하지 않는 혁신적 사고와 행동을 강조한다. 저의 대학 운영 철학은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실패가 용인되는 캠퍼스’를 운영해 재학생들의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학교가 떠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실천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센터 운영과 모든 학과에 자체적인 산하센터 설립 및 창업을 독려하고,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소통협력, 문제해결, 자기주도 역량을 두루 갖춘 글로벌 미래 인재를 양성해 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은.

▲광주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 시대 흐름에 맞는 학과 구조 개편을 가속화하고 자격증 시험 및 취업특강, 기자재를 늘리는 공격적인 지

원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이끌어 낼 것이다.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 진로 탐색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부 노력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취임 1년 성과를 꼽는다면.

▲광주대는 학생 학습역량과 취·창업 지원, 교육시스템 등 주요 지표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2022년 교육부 주관 3주기 대학기관평가 인증대학, 2023년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잇달아 선정돼 안정적인 대학 운영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역특화청년무직전문가양성사업(GTEP), 교육부 주관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 등을 통해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 비전과 전략은.

▲“미래를 품은 당신의 빛, 광주대학교” 슬로건을 앞세워 변화와 소통 확대 등을 목표로 교육과정

을 혁신하고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이 기업의 영역을, 기업이 대학의 영역을 넘나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대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혁신과 도전, 그리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능동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겠다. 현재 새로운 교육수요 발굴과 프로젝트 베이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한 대외협력처를 중심으로 네트워킹 혁신을 도모해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지역산업체에 스며들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대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다.

▲지역산업연계형 인재양성 등 기업체와 유기적인 산학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학생들이 지역사회가 원하고 실무에 능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뒷받침하겠다. ‘젊은 총장’으로서 혁신과 도전 정신을 앞세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한 발 더 뛰고 부지런히 소통하며 책임있는 경영으로 학교발전을 이끌 것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2곳 선정...인공신장·골다공증 백신 개발

7년 간 137억원 투입

전남대의 2개 연구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사업 추진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대는 RLRC 공모 사업 6개 가운데 2개가 포함돼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10일 전남대에 따르면 2023년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사업에 전남대 ‘신장질환 제어 및 투석기 고도화 선도 연구센터’(이하 신장질환연구센터·센터장 김수완 의과대학 교수)와, ‘골다공증 토탈 솔루션 선도연구센터’(이하 골다공증연구센터·센터장 이창문 헬스케어메디컬공학부 교수)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신장질환연구센터는 광주시와 권역내 기업 매칭금액을 포함해 7년 동안 137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한다.

‘신장질환연구센터’에는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전남대병원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두 기관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신장질환 제어기술개발 ▲투석기 고도화 및 휴대화 기술개발을 위해 2개 연구그룹을 구성한다. 분야별 핵심 원천



김수완 교수



이창문 교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권역 내 5개 기업도 참여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면서, 지역 고용창출에 나서게 된다.

특히 신장질환 전주기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과 휴대형 인공신장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김수완 센터장은 “신장질환 디지털 치료제 개발과 투석기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지역혁신을 주도하며 국내외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라며 “광주시 헬스케어 산업 분야와 연계해 AI기반 바이오헬스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다공증연구센터’는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주

관하고, 조선대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골다공증의 전주기 관리를 위한 골다공증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및 치료 경과 임상 모니터링 기술을 최첨단화하고, 지역 핵심 산학연 연구 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 특화 바이오 의료 융합산업 선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 과제는 2023년 7월부터 2030년 2월까지 7년간 수행된다. 정부 출연, 전라남도과 여주시, 산업체 대응자금을 포함해 모두 133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전남지역에 고부가가치를 갖는 바이오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브 역할의 선도연구센터를 구축하면서, 첨단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에 나서게 된다.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Regional Leading Research Center)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해 지역 산업체와 상생하는 지역혁신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다.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역혁신 분야에 특화된 선도연구센터를 구축하도록 매년 신규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365+체육은활동 동영상’ 보급...학생 건강증진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 이후 비만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365+체육은활동’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교육청은 비만·저체력 학생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365+체육은활동 동영상’을 제작해 지역의 학교에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365+체육은활동은 농구·배드민턴·플라잉디스크·축구·족구·피구 등 7가지 종목의 실기와 이론강의로 구성됐다. 또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단한 규칙, 간편한 용품이 활용됐다.

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신체활동

놀이문화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학급별 대회, 챌린지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박재현 전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365+체육은활동 콘텐츠는 규칙과 용구가 간단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며 “학교에 자연스러운 신체활동 놀이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회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유망 기술혁신 창업기업 전략적 성장지원 조선대-남부대 창업보육센터, 업무협약

조선대 창업보육센터와 남부대 창업보육센터가 유망 기술혁신 창업기업의 전략적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0일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에 따르면 최근 창업보육센터 2층 회의실에서 조선대와 남부대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조선대 창업보육센터 지준필 센터장, 남부대 창업보육센터 정상원 센터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졸업기업은 물론 대학 학생·교직원 창업 활성화 및 기업 성장지원 등과 양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 세부 내용은 ▲유망 기술창업 기업 발굴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 ▲창업 성장 멘토링 및 기술 등 전문 분야별 전문가 연계 ▲창업 지원 네트워크 공동 활용 및 협업 지원 ▲신진 창업보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입주·졸업 기업, 학생·교직원 창업 교육 등 창업지원 공동 사업 추진 ▲창업기업 지원 성공사례 공유 및 성과 확산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준필 조선대 창업보육센터 센터장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망 기술혁신 창업기업 발굴과 양 기관의 창업지원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성장지원에 힘쓰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남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무협약(MOU) 체결

2023년 7월 3일 (월) 13:00 장소: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층 회의



조선대 창업보육센터와 남부대 창업보육센터가 유망 기술혁신 창업기업의 전략적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또한 이러한 성공사례 전파를 통해 대학 내 기술혁신 창업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